

“돌봄은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



창립 48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은 ‘돌봄 위기와 삶의 질, 그리고 사회복지 방향’을 주제로 개최됐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6월 19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돌봄 위기와 삶의 질, 그리고 사회복지 방향’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로 창립 48주년을 맞는 아산재단은 지난 1979년부터 매년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에 관해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 왔다.

정몽준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돌봄의 문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가치체계와 연결되고 있고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국가, 지역사회, 기업, 가족의 관점에서 돌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노인 돌봄은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저희 아산재단도 우리 사회의 돌봄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4년 아산재단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 중 우수 연구자 3명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주제로 김지미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아동·노인 돌봄의 사회화 프로세스에서의 가족화와 탈가족화’, 2주제로 김재림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인구소멸지역에서 의료와 돌봄의 지도 그리기 - 경상북도 영양군 사례 연구’, 3주제로 남석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디지털 대전환기 인공지능 정서지원 돌봄 로봇의 역할과 돌봄의 미래’를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어 최재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 참가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돌봄의 주체, 돌봄 정책 등 다방면의 고려 필요해

김지미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적 돌봄 서비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가족주의 복지체제의 한계와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노인돌봄은 여전히 가족주의 모델이 유지되고 있다”며 ‘돌봄을 할 권리’와 ‘하지 않을 권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족 돌봄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아동과 노인을 동시에 돌보는 이중돌봄 제공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공적인 돌봄 체계에서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새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경상북도 영양군 지역 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소멸 지역의 통합돌봄 현실과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살던 곳에서 나이먹기’와 ‘돌봄정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산업발전이 아닌 복지와 돌봄, 건강을 위한 자원배분의 원칙은 달라야 하므로 자원이 도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통합돌봄의 소지역 맞춤형 모델을 별도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발표자와 토론자, 참가자들이 함께 사회적 돌봄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사회의 변화 반영한 돌봄 역할 재조명

남석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 로봇의 역할과 미래 돌봄을 위한 기술의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남 교수는 “돌봄 로봇은 노인 돌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지만 감정적 교감 부재, 소외감 심화라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 존엄성을 증진시키는 따뜻한 기술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기술, 사람, 정책이 함께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 구축을 통해 인간 중심의 미래 돌봄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최재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소연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나진경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진환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돌봄은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이지만 우리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국가, 지역사회, 기업, 가족 등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새로운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조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글 편집부